

삼위 일체 대축일
 제1독서 : 출애34, 4b-6, 8-9
 제2독서 : 2고린13, 11-13
 복음 : 요한 3, 16-18

숲정이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요한 3, 17)

강론

소리

三位一體에 대한 믿음

우리가 절뚝거리다

오 성기 신부/덕진보좌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그저 대강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다. 그는 정통으로 사회주의를 공부한 사람이고 인류의 미래를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려는 이상주의자이기도 하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지닌 만큼의 장단점을 지닌 사상체계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편견도 내세우지 말도록 하는 엄연한 이 세계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우리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우리나라 이익에 어떤 보탬이 올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는 동족인 북한이 소외당하고 있는 처량한 모습에서 우리는 슬픔을 느낄 수도 있다.

북한에 소련의 힘을 빌어 압력을 넣는다거나 어떤 방식이든 북한을 국제사회 속에서 매장시키려 드는 일은 형제간인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는 마음 때문이다.

북한과 진정으로 마음 열고 이야기 나누지 못하면서 밖으로 나가 남과 우리문제를 논의하는 일은 외세의 자취침묵문제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걱정도 끼치는 셈이다.

규모있는 살림을 하는 집안이라면 집안일의 난맥상을 집치장을 서둘러서 가리려든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쌓인 온갖 비리와 부조리와 정신적 공허, 도덕적 타락 현상을 진지하게 해소하려는 노력은 없이 냉전시대의 악의 찌꺼기는 청소하려는 애씀도 없이 무슨 큰 성과가 달리 이번 회담에서 나올 수 있을까 싶다.

하느님이 불러도 못 들은 체하다가 이방인과는 어울려 하느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일삼던 이스라엘의 구약시대가 뒤돌아보아지는 것은 이 시대에 종교와 정치와 교육 모두가 제 길을 못찾아 서로 제각기 절뚝거리며 어두운 별판을 서성이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다. **죄**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 성부·성자·성신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한 분 하느님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세 위격을 지니셨다는 것이며, 이 삼위는 서로 구별되면서도 동일하신 하느님이신데 높고 낮음이나 먼저와 나중이라는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의 신비이며, 곧 하느님의 내밀한 초자연적 생명에 관한 계시이다(마태3, 16-17; 12, 32; 28, 19-20; 요한1, 1-14; 5, 17-18; 14, 9-11; 목시1, 4-6).

구원의 역사는 한 분이신 참 하느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어, 죄를 짓고 하느님과 동진 인간들을 화해시켜 당신께 돌아서게 하고 당신과 일치시키는 역사이다. 영원하신 성부께서는 영원하신 계획으로 성자를 지상에 파견하시어 인류를 구원하도록 하셨으며, 교회를 세우시어 성신으로 하여금 이를 보호하고 인도하게 하시어 모든 사람들을 성화시켜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려는 것이었다. 물론 성삼위께서는 대외적 행위에 있어서는 공동적으로 하시나, 특정한 행위에 있어서는 각각 그 위격에 귀속시키는 일이 있으시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은 성부의 뜻에 의한 것이었고, 그 실현은 성자를 통하여 이룩하셨으며, 최종적으로 구원의 은총은 성신에 의해 주어지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전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일치에 의하여 모인 백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삼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으며, 언제나 삼위를 흠송하고 기도드리며 은총을 받는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신은 엄연히 다르지만 하나이시며 나눌 수 없는 일체이신 하느님, 그분은 곧 진·선·미 자체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사랑의 분이심을 알고 또한 믿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축일을 지내면서 온전한 마음과 힘을 다하여 만유위에 성삼위를 공경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관계로 한 분 하느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인으로서 일치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성부도 천주시오, 성자도 천주시오, 성신도 천주시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요, 성신도 아니며, 서로 다른 위격이로되 하나의 천주시니라”(아타나시오 신경).



삼위일체 대축일

믿을 교리로서 하느님은 한 분이시나 성부, 성자, 성신의 세 위격(位格)으로 되어 있다는 삼위일체를 특별히 기념하는 날로 성신강림 대축일 후 첫번째 일요일에 지켜진다. 4세기경 삼위일체 이단설을 주장하던 아리우스파에 대한 교회의 반박에 그 기원이 있으며, 리에즈(Liege)의 주교 스테파노에 의해 주장되었다. 몇몇 지역에서는 대림절 직전의 일요일에 기념되기도 하였다. 특별히 영국에서 널리 지켜졌는데 이는 성신강림 대축일 후 첫 일요일에 캔터베리 대주교로 축성된 성 토마스 베게트가 바로 그날을 영국에서 삼위일체를 기념하는 축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334년 교황 요한 22세에 의해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이날이 교회에 도입되어, 1910년 교황 성 비오 10세에 의해 대축일로 선포되었고, 전세계 모든 교회가 의무적으로 이날을 기념하게 되었다. 이날의 미사와 성무일도의 전례문은, 프랑스의 어떤 지방에서 작성된 것으로 오랫동안 받아들여 지지 않다가 1334년 비로소 교황청에 의해 인가되었다. 삼위일체 대축일은 유일하신 하느님은 3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그리스도교의 근본교리에서 유래하였다. 하느님의 유일한 생명이 이 삼위에서 전개된다. 성부는 자신 안에서 자기와 본질이 같은 영원의 '말씀'이신 성자를 낳고 이 2위에서 창조되지 아니한 영원한 사랑이신 성령이 발생한다. 인간은 하느님의 본질의 일체성(一體性)은 알 수 있으나 3개의 하느님의 위격의 차이는 파악할 수 없으며 다만 신앙으로써만 인간은 하느님의 삼위일체의 생명의 신비를 인정해야 한다. 바로 이 삼위일체의 신앙이 그리스도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한다. 무한하신 하느님은 유일하시지만, 고독하신 목적과 같은 분이 아니시며 받아들이고 내어주시는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신 위격이시다. 그는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랑이 넘쳐 그 사랑을 피조물에게 나누고자 하셨다. '나'라는 인간은 언제나 '너'라는 자와의 관계에서 살고 있으므로 하느님과 나를 사랑 하는 것이 최대의 계명이라는 것과 인간 인격의 최고의 완성은 삼위일체의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날 모든 신자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미사해설 11

감실 -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모습

천주교회의 성전에는 의례히 '감실'이 모셔져 있다. 감실의 위치와 형태, 재질은 매우 다양해져 있지만 가장 소중한 곳에서 가장 소중한 모습으로 신자들을 맞이한다. 신자들 역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생각하고 경배드린다.

왜 그럴까? 감실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녔기에 그토록 소중한가? (그 감실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음을 전제로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이 감실은 성당에 있지 않고 집에 있었다. 전례(성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나 병자들을 위하여 모셔갈 성체를 보관하기 위하여 조그만 '성함'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후의 일이다. 점차 성체를 모실 감실과 또 이 감실을 따로 모시는 소성당을 짓기까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많은 변천을 거듭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무수한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 미사가 거행되는 동안은 성체성사가 실제로 제대 위에서 거행되기 때문에 감실의 의의는 감소된다. 그러나 성전은 어떤 공적인 전례를 거행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미사를 드리기 위한 집회 장소로만 성전이 이용된다면 감실은 그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전은 개인적인 기도의 장소로도 그 의미가 있다.

어떤 전례적 행위로만이 아닌 하느님과 자신의 만남의 관계를 깊게 함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느님과 자신이 실감나게 만나는 곳으로 체험 되어질 때 그 성전은 더욱 거룩한 집이 된다. 언제나 불을 켜놓고 나를 기다리고 맞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감실과 성체등을 통해 유감없이 체험하게 한다. 물론 감실 안에만 하느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감실을 통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기쁨과 슬픔, 고통과 한을 함께 하시는 하느님임을 쉽게 믿게 한다. 세상 어느곳으로도 숨을 수 없는 가련한 인간을 감싸안으시는 하느님의 부드러운 품안을 체험하게 한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험겨울 때, 아무에게도 이해 받을 수 없는 초라한 영혼인 채로 감실 앞에 무릎을 꿇는다. 또한 하느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쁨과 환희를 안고 감실앞에 두손을 모으기도 한다.

즉 성체가 모셔져 있는 감실은 우리 믿는 이들 회노애라의 중심이 된다. 언제나 꺼지지 않는 성체등이야말로 우리의 위안이요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양재 · 한복 · 흠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운 (대리안드레아)
동부시정양 · 민정당시윤
☎ 86-2715

벗들을 찾습니다

전북시레지오중동문회

매 : 1990. 6. 21(목)
오후 7시 30분
곳 : 익산 용안 천주교회
연락처 : 전주 77-4488

성심木공업사

성구·제대·강론대·제구장·긴의자
탁상·화분대·훈례용기구 맞춤전문

서 스테파노 (옥봉)
한 안나 (은순)

전주 ☎ 77-1747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꽃집



이 마리아
범 디 또

☎ 84-2628

잡 관 /

멈추지 말고 다시 시작합시다

- 문규현 신부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 -

재판부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수백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사면을 해놓고도 전 세계에 자랑하고도 남을 우리 통일의 꽃 수경이에게는 10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지니고 이의를 제기해본 분이 계십니까? 사면은 대통령의 직권이 아니라 사법부의 권한은 아니라고 변명하면 그만이었습니까? 김현희의 이용가치를 희생자 가족의 피맺힌 호소보다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민중적 독재권력에 대해서 '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 제기를 과연 해본 일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간곡하게 재판부에 경고합니다. 과연 입수경 수산나를 처벌해야 한다면 나 문규현 신부를 대신 처벌해 주기 바랍니다. 수경이가 받은 10년을 내 형기에 더해져서 기꺼이 18년을 살겠습니다. (가족, 방청석 호느낌) 그것만이 우리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나이 어린 젊은이를 법정에 세운 도덕적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와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이 시대의 민중의 고난에 너무 무관심하게 교회가 자신이 지녀야 할 십자가를 외면해 왔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니라 고난을 외면해온 과거와 현재에 있습니다. 이제 저의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재판을 마치면서 제가 밝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까지 다시 볼 수 없는 여러분 모두 앞에서 다짐 해 둡니다.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을 하나된 민족구원인 통일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건 강하시고 힘있는 통일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다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 구 소 식

1. 축! 견진: 복자천주교회 6월17일 오전10시30분
2. 초등부 교리교사 하계연수: 일시-1990년 6월 26일~29일 장소-송광 제2야영장
3. 중·고 교리교사 하계연수: 일시-1990년 6월30일(토)~7월3일(화) 장소-송광 제2야영장 내용-캠프 이론 및 실기, 하계 교리교재 강의 레크리에이션
4. 좋은 영화상영: 고등학생·대학생·일반인을 위한 좋은 영화상영 제목-「에마논」 일시-6월 11일(월) 오후7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강당 회비1,000원
5. 살레시오 수도회 성소모임: 대상-돈보스코의 모범을 따라 가난한 젊은이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를 원하는 고1 이상의 젊은이, 일시-6월17일 오후2시(매월 셋째주) 장소-가톨릭센터 2층 평화신문사 준비물-성서, 성가집
6. 마리아수도회 성소모임: 6월24일 10시~16시까지, 곳-서울 마포구 망원1동 403-2호 문의-마리아 수도원(02)334-8547
7. 축! 영명(성바르나바) 11일 박영규 신부님
8. 화산동 성당 서석구 신부님 주소: 560-250 전주시 중화산동2가 108-4 세진빌라303호 전화 87-9843
9. 각 본당 홍보분과 위원 연수: 6월17일(10시-오후5시) 가톨릭센터, 대상-본당 홍보부장 및 차장, 홍보위원 준비물-필기도구, 미사도구 참가비-1인당 3,000원 문의-교구청 홍보국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 -

비닐제품, 알미늄 랩등은 분해되지 않아 자연경관을 해치고 처리불가능한 쓰레기가 됩니다. 될 수 있는대로 사용량을 줄이도록 합시다.

쇼심이 (879) 김병오



혼수전문점
주단·침구·모시·삼베
깨끼한복·각종이불맞춤
부인주단
김한중(오한)
황인재(모나카)
전주시 전동 남문영
☎ 84-7294

全州畫廊
한국화·양화·고서화매매
병풍·액자·수예(전시표구전문)
한택현(마르첼리노)
위치: 도청면 백범집 앞
☎ 85-2220

주식회사
현대주방전주전시장
영업용 종합주방기구 주문제작
품질보증
하성균(오백)
북전주 전화국 옆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0-1
☎ 74-6357

꿈란불치병상담소

중풍·관절염·디스크·신경통
박장춘(빨리치도) 임혜선(에스엘)
자연식품 및 송죽알로에
(주부사원 수시 모집)
인후 2단지 금성교회 앞
☎ (사) 251-0848 (자) 82-3271

장수 양어장 직판

★향 어★
(회 포) 떠드림)
매장: 전주농협슈퍼 내
육태수(토미)
박진희(실비아)
☎ 87-8118~9

사원모집

당사는 전자부품 생산업체로서 성실한 생산직
여자사원을 모집합니다.
1. 자격: 학력 제한 없음. 만16세이상 25세미만
2.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1 통씩
3. 모집기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알·에프·하이텍
전주시 금암동 1동 1556-3 ☎ 5-3697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 김글라라수녀님 증신하원식 14일 오후2시 동인에서.
 * 어린이 첫영성체 17일공식미사때 축하식은 미사후 : 교리실
 1. 어린이 첫교백성사 : 16일 오후2시 아침저녁기도 찾고있음.
 2. 부녀회상임위원회 : 12일 어머니미사후.
 3. 모임 : 자모회-오늘공식미사후, 꾸리아-오늘오후2시, 행제회-16일 오후2시, 천사회-11일 오후6시, 노송성당 교리실.
 4. 금주청소구역 : 중노1가12반 중노2가1반 다음주-중노2가 2, 3반 내가걸석하면 다른이에게 두배의 부담을 주게됩니다.
 5. 축, 길손 : 17일12시 신랑-박갑주(미카엘), 신부-이성희(스텔라).
 6. 바자회 총수입금 : 1,115,570원 수고해주신 부녀회원과 공소부녀회원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948,130원 ☐ 교무금 : 596,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1. 꾸리아 : 오늘 오후2시, 2. 청년회 : 오늘 저녁미사후.
 3. 견진교리 : 11~16저녁 8시 견진 : 17일 공식미사.
 4. 기정방문 : 12일, 13일-전북1반, 14, 15일-전2반, 19일-전3반, 20일-전4반, 21일-전5반, 22일-태6반.
 5. 자모회 안나회 : 14일 오전10시, 6. 구역분과회 : 16일 오전10시, 7. 성우회 오설회 : 24일토 연기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8. 화요일 성서 : 19일 저녁8시 배주 화요일에 성서 공부 가있겠습니다. (사무실에 신청바람)
 금주전례 : 해설-최유남 ①장주호 ②장명애
 봉헌-장주호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윤귀자 ①유대석 ②조부영
 봉헌-유대석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557,040원 ☐ 교무금 : 753,5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1. 청년회, 성가정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2. 성경읽기 : 사무실 하1장~12장.
 3. 금주전례 : 해설-박시도 독서①이육생 ②김갑자
 봉헌-이기봉, 이준희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송봉덕 독서①양주태 ②장영미
 봉헌-이명수, 허원봉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206,700원 ☐ 교무금 : 181,9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오늘은 삼위일체대축일!
 1. 회의 : ①반장회-오늘공식미사후, ②성심회 : 6월13일(수)오후2시.
 2. 모임 : ①전례부-오늘저녁미사후 ②울뜨레아-6월13일(수)저녁8시.
 3. 일림 : ①견진교리및 특강-신자진림참석바람. ②가정방문-6월13일(수)11반, 6월20일(수)12반~13반. ③성가연습-화, 목, 금, 토 오전10시30분 ④견진자를 위한 9일기도-6월15일~23일(저녁미사후) ⑤에비자교리-매주일 공식미사후, 에비자인도에 관심을 바랍니다.
 4. 감사 : 정노찬차례 협조해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431,950원 ☐ 교무금 : 230,000원

*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111 사목회장 오직환

1. 마사회 마지막날 유종의 미를 거뭙시다.
 2. 복사단 어머니모임 : 15일(금) 어머니미사후.
 3. 청소년사 : 서완산동2가 서연
 4. 사제관·수녀원 신축현금 신입총액 : 21,674,000원 입금 : 11,180,000원
 ☐ 지난주 봉헌금 : 409,720원 ☐ 교무금 : 355,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종충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오늘은 삼위일체대축일입니다. * 주일금 배가 운동에 적극 협조.
 1. 자모회 : 오늘 오전10시, 2. 사목회 : 오늘 공식미사후, 3. 재속글라라형제회 : 오늘 오후1시30분, 4. 구역장, 반장모임 : 14일(목)오전11시, 5. 바르사수녀님 증신하원식 : 14일(목)신자여러분의 많은 기도바랍니다. 6. 레지아 : 다음주 오후2시, 7. 감사합니다 : 어머니성가대 후원금(익명으로 10만원 회사하신분), 8. 주일학교 첫영성체교리 : 18일~7월7일 매일오후5시, * 신칭-15일학교지수녀님께, * 대상-국교3년이상, 9. 초등부 교리교사모집 : 영세받은지 1년이상된 남·여(남자교회 환영).
 * 금주보수비현금액 : 280,000 * 현재모금총액 : 140,349,159
 * 금주보수비신입액 : 없음. * 현재신입총액 : 213,231,399원
 ☐ 지난주 봉헌금 : 1,256,120원

* 화산동

사제관 87-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87-9842 사목회장 박영근

1. 전례위원 모임 : 14일(목) 오후8시.
 2. 초등부 어린이들을 매주 토요일 오후2시30분까지 성당에 보내주시기를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초등부 교사회-
 3. 중고등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5시30분까지 성당에 나오십시오. -중고학생회-
 4. 금주전례 : 장병순 독서①함용광 ②안정옥.
 차주전례 : 최준환 독서①신분순 ②이숙희.
 ☐ 지난주 봉헌금 : 142,690원 ☐ 교무금 : 189,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병준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환

※ 6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 동촌모내기봉사 : 사목회, 청년회(양생장소) 오늘공식미사후, 1. 제대회 : 공식미사 후, 2. 구역혈제회월정 : 13일(수) 오전10시-12반, 10시30분-6가반, 11시-6가반, 오후2시30분-24가반, 3시-24가반, 3시30분-25반, 4시-20반, 14일(목) 오후8시-15반, 8시30분-16반, 9시-17, 18반, 15일(금) 오후8시-30반, 광곡, 평촌, 3. 구역청야유회 : 14일(목) 오전8시30분 출발, 장소-부여백마강, 4. 성모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5. 청년회 : 다음주 저녁미사후, 6. 신앙체신특별강론 : 다음주일.
 7. 금주전례 : 박중구 복사-이정문, 지동호 봉헌-이충원 부부, 차주전례 : 문치구 복사-강상근, 차동주 봉헌-신규원 부부.
 * 첫 영성체 교리 : 대상-국교생3학년 이상(접수-사무실).
 ☐ 지난주 봉헌금 : 472,330원 ☐ 교무금 : 536,500원

* 효자동

본당 83-3841 사무실 84-0915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81-0050 수녀원 84-4804 보좌신부 김태환
 사목회장 황수석

※ 6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1. 축, 삼위일체대축일! : (오늘), 2. 축, 국교생 어린이 첫 영성체 및 영세식 : 6.16(토) 오후2시-영세식, 후3시-첫영성체, 3. 에비자 교리시간 안내 : ①일-10 : 30 ②화-10 : 30 ③목-후 7 : 30이상 성인반 중고생반 : 토-후6시, 4. 모임안내 : ①울뜨레아-오늘 11시미사후 ②구역봉사자 모임-수 10 : 30(교육관).
 5. 애령회 : 다음주 11시미사후(교육관).
 6. 금주청소봉사 : 예그린, 광진광자, 세경서원
 7. 교부금을 원합니다. * (미신입 세대 신입바람)
 8. 오늘은 진다네마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9. 지난주 2차헌금(성당 공사 위해) : 협조에 감사.
 ☐ 지난주 봉헌금 : 845,010원 ☐ 교무금 : 903,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사무실 86-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87-0711 사목회장 김홍두

1. 울뜨레아 : 공식미사후, 요셉회-공식미사후.
 2. 베소라성서개강 : 13(수) 오전10시~12시 구역, 오후8시30분~10시 신약.
 3. 성모회, 자모회 : 15(금) 어머니미사후, 4. 두현리 공소미사 : 15(금) 오후8 : 30, 5. 첫영성체 : 16(토) 오후3시.
 6. 반회합 방문 : 13(수) 오전10시-동원, 오후2시-원진, 14(목) 오후8 : 30-중양
 7. 차주모임 : 사목회, 세백회
 금주전례 : 해설-김인규 독서①조준현 ②백경숙 기도-박천운, 임선제
 차주전례 : 해설-강진상 독서①송재진 ②한정례 기도-김재희, 김귀주
 ☐ 지난주 봉헌금 : 588,120원 ☐ 교무금 : 688,000원